

4) 일제의 대응과 순천의병의 새로운 모색

전남지역 의병의 활동이 거세어질수록 일제의 대응도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는 강온책을 병행하였는데, 한편으로는 귀순을 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와 경찰병력을 증강 배치하였다. 이를테면, 1908년 2월 초순에는 일본군 남부수비관구의 제14연대가 15개 단위부대로 편성되어 전남지역에 집중 투입되었다. 그 결과, 전남지역의 의병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즉, 의병장 기삼연·김준·김률 등이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일반 의병 750여 명이 전사하고, 700여 명의 의병이 붙잡혔다.¹⁾

그리고 일제는 1907년 12월에 '귀순 및 면죄에 관한 조치'를 발표시켜 의병의 귀순을 적극 권유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도마다 선유위원을 파견하였으며, 수비대와 헌병대 및 도·군 등의 기관에서도 귀순자를 받아들였다. 일제는 매달 기관별로 귀순자의 숫자를 파악하였는데, 1908년 10월까지 총 8,728명의 의병이 귀순하였다. 경찰서에 귀순한 5,129명 가운데 전라남도의 관내 경찰서에는 고작 65명이 귀순하였고, 그 중에서도 순천경찰서에 귀순한 자는 14명에 지나지 않았다.²⁾ 다시 말해 전라남도는 의병의 규모와 활동에 비해 귀순에 응하는 의병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자 일제는 강경책을 구사하기 위해 헌병대와 순사대를 대폭 증강하였으며, 전남 토벌대를 편성하여 투쟁력이 강한 의병부대를 뒤쫓기도 하였다. 예컨대, 1909년 4월에 일제는 안규홍 의병을 진압할 목적으로 광주와 남원의 2개 대대를 동원하여 순천과 보성 지역에 투입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³⁾ 그리고 전북과 경남에 주둔 중인 2개 중대 병력을 순천방면에 집중 배치하였다. 이는, 순천지역이 의병활동의 중심지로 떠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점점 강력한 반일투쟁을 전개하는 전남 동부지역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 부심하였다.⁴⁾

1909년 5월에 전라남도 관내의 경찰서장 회의가 소집되었다.⁵⁾ 이 회의에서 의병의 진압책을 논의하였는데, 변장정찰대를 운용하자는 안이 채택되었다. 변장정찰대는 당시 가장 우세한 의병세력인 전해산·심남일·안규홍·양상기 등의 의병부대의 근거지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강온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제는 대규모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라남도의 의병을 소탕하기 위하여 두 달간 임시파견대를 투입하여 철저한 수색작전을 펼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일제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는 무조건 민적을 작성하여 군경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였다.⁶⁾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 그것이다. 일제는 조선에 파견된 보병 2개 연대를 비롯한 육해군 조직을 총동원하여 전남지역 의병을 진압하려는 것이었다.

의병진압작전이 실시되던 1909년 9월 현재 전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의병의 규모에 대하여 일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1909년 9월 전남지역 의병의 교전횟수와 피해상황

- 1) 「폭도사편집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3, 1971, 560쪽.
-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2, 698~703쪽.
- 3) 이일룡 역, 『전남폭도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107쪽.
- 4) 「의병진압협약」, 『대한매일신보』 1909. 4. 22.
-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4, 581~583쪽.
-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5, 470~471쪽.

경찰서	교전횟수	의병규모	의병의 피해상황			
			전사	부상	피체	피탈총기
광주	16	230	3	-	3	21
나주	3	133	1	-	4	-
목포	3	41	-	-	8	-
순천	18	559	26	10	12	15
장흥	1	40	59	2	160	101
제주	3	10	-	-	4	-
계	44	1,013	89	12	191	137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5, 560~561쪽.

당시 1,000여 명의 전남지역 의병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순천경찰서 관내에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앞의 표는 일제의 추정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경향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 가운데 순천지역의 의병들이 제3차 의병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진압작전 중에 일제의 잔인한 만행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이에 대하여 황현은, “일병들이 길을 나누어 호남의병을 수색하였다. 그들은 그물치듯 사방을 포위하였으며, 촌락마다 살살이 수색하고 집집마다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즉시 죽였다. … … 이때 사망자수는 무려 수천 명이였다.”고 기록하였다.

진압작전이 끝났을 때 다수의 의병장을 비롯하여 약 500명이 전사하였고, 약 2,000명이 붙잡혔다. 순천지역에서도 1909년 9월 25일과 29일, 의병장 조경원(趙敬遠 : 부하 16명)과 박동주(朴東柱 : 부하 25명)가 각각 체포되었다.⁷⁾ 10월 15일에는 상사면 출신의 오용기(吳龍基),⁸⁾ 10월 31일에는 장기원(張基元) 이하 21명, 11월 7일에는 장성심(張聖心) 이하 9명,⁹⁾ 이어 8일에는 조창국(趙昌國),¹⁰⁾ 등이 각각 자수하였다. 그후에도 의병장 조태식(趙泰植)과 그 부하 염필갑(廉必甲) 등 3명이 11월 25일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대규모 진압작전이 끝난 1909년 11월경에도 강의연(姜義淵) 의병부대는 체포되지 않고 신출귀몰하게 활동하고 있었다.¹¹⁾ 이처럼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의병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일제는 이 기간에 체포된 의병 가운데 약 600명을 동원하여 해남~하동간 도로의 확장공사에 강제로 투입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훗날 이 도로는 이른바 ‘폭도도로’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전남지역의 의병을 철저히 유린한 후 1910년 8월에 강제로 점령하였다.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는 데에 전남지역의 의병활동이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에서 살아남은 의병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일제의 총칼을 피한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9, 663쪽.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5, 793쪽.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6, 103·114쪽.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9, 666쪽.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6, 167·114쪽.

이름 모를 일반 의병들의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일제는 의병의 주도인물 중에 살아남은 자를 겨우 4~5명으로 추정하였다. 이기손(李起巽)·이덕삼(李德三)·노일당(盧一堂)·이감용(李甘龍)·강승우(姜勝宇)·서응오(徐應五) 등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이기손과 강승우를 제외한 사람들의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광주 출신의 이기손은 간도로 탈출하였다가 일이 여의치 않자 전북 금산(錦山)의 대둔산 골짜기에 은거, 한 많은 생애를 마쳤다. 강승우는 이미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해로 피했다가 귀향하여 제자의 도움으로 동굴에 은거하였다. 그후 1921년에 발각되어 결국 순국하였다. 의병에서 독립운동가로의 변신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에도 전남지역 의병들은 독립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즉, 제2차 의병을 일으킨 바 있던 임병찬은 독립의군부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12년부터 추진되었는데, 군사조직을 축으로 하는 국내에서 가장 치밀한 대규모의 비밀독립단체였다. 여기에는 의병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순천지역 출신들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기섭(趙璣燮)·김종주(金鍾胄)·김승제(金承濟)·박해섭(朴海燮)·배영주(裴泳柱)·서인석(徐仁錫)·이병강(李炳强)·선영배(宣永培)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독립의군부의 군 대표 302명에 포함되어 있다.¹²⁾ 비록 1914년에 발각되었지만, 일제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 순천 지역민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결코 잊지 않았다.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조경한(趙擎韓)과 같은 결출한 독립운동가를 성장시킨 기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12) 임병찬, 義兵抗爭日記』, 한국인문과학원, 1986, 242~244쪽.

참고자료

- 독립운동사자료집』 1~3 · 별집1.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무한국관보』.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상해 유신사, 1920(『박은식전서』상, 1975).
『탐산실기』, 1954(1983).
『暴徒에 관한 編冊』(정부기록보존소 소장, 1907~1909).
경북경찰부, 『高等警察要史』, 1934.
황 현, 『태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8~19, 1965·1979~1990.
黃炳善, 『黃珣模義士 항일투쟁사』, 1968.
이일룡 역, 『천남폭도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강진원 의병장 약전』, 햇불사, 1981.
김남 편, 『희사 황병학』, 전광산업사, 1983.
임병찬, 『희병항쟁일기』, 한국인문과학원, 1986.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1, 1986.
강길원, 『담산 안규홍의 항일투쟁』, 춘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박 환, 『나철의 인물과 활동』, 동아연구』17, 1989.
이상식, 『의병전쟁연구-전남 동·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관논총』23, 1991.
전라남도, 『천라남도지』7, 1993.
홍영기, 『대한제국시대 호남의병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3.
홍영기, 『1896년 나주의병의 결성과 활동』,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홍영기, 『1907~1908년 일제의 自衛團 조직과 한국인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3, 1995.